

안면도관광지 개발 조정방안 수립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간: 2025. 5. 7. ~ 5. 15.

국가: 미국(뉴욕, 올랜도)

2025. 6.

목 차

1. 출장개요	1
2. 출장내용	2
1) 세부일정	2
2) 국외출장 활동 주요 내용	3
① 올랜도 관광청	3
② 올랜도 디즈니 월드	6
③ 올랜도 디스커버리 코브	8
④ 올랜도 씨월드	12
⑤ 펜실베니아 롱우드 가든스	15
⑥ 뉴욕 식물원	17
⑦ 뉴욕 관광청	19
⑧ 브릿지락 캐피탈 홀딩스	21
⑨-1 센트럴 파크	22
⑨-2 센트럴 파크 동물원	24
⑩-1 하이라인 파크	26
⑩-2 첼시마켓	27
3. 종합 시사점	28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보고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공개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 과제는 1992년 최초 조성계획 수립 후 개발이 미진한 안면도 관광지 1·2지구에 대하여 변화된 지역 여건 및 관광 패러다임 등을 반영한 개발 방향 재수립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이에 안면도 실정에 맞는 국외 선진사례 지역을 답사하고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계절·체험형 콘텐츠가 강화된 안면도 관광지 개발방안 모색과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출장기간	2025. 5. 7. ~ 2025. 5. 15. (6박 9일)			
출 장 국	미국(올랜드, 뉴욕)			
출 장 자 (8인)	성명	소속	직급	역할
	김남호	충청남도 개발전략과	팀장	안면도관광지 투자유치 활동 및 현장 답사 총괄
	강태민		주무관	출장 일정 주관 및 총괄
	조재오	태안군 관광진흥과	국장	우수정책 발굴
	김기만		과장	선진사례 지역, 안면도 현황 비교
	배경호	충청남도개발공사	차장	안면도관광지(지포지구) 접목 방안 발굴
	최진의		과장	
	한석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초빙책임 연구원	기관방문 인터뷰 대응 및 적용가능 아이템 발굴 및 조정 방안 수립
	김보람		연구원	기관방문 내용 및 시사점 정리

2. 출장내용

1) 세부 일정

일 정 (일차)	출발지	도착지	주요일정 및 업무수행내용
5. 7.(수) (1일차)	인천	뉴욕 올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 인천 10:00 → 뉴욕 11:00 (비행, 14시간) ▶ (경유) 뉴욕 15:30 → 올랜드 18:34 (비행, 3시간) ※ 날짜 변경선 통과
5. 8.(목) (2일차)		올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일정> 올랜드 관광청 방문 - 기관명 : Visit Orlando ▶ <현장견학> 올랜드 디즈니 월드 탐방 - 기관명 : Magic Kingdom at Walt Disney World Resort
5. 9.(금) (3일차)		올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일정> 디스커버리 코브 올랜드 방문 - 기관명 : Discovery Cove
5. 10.(토) (4일차)	올랜드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견학> 씨월드 올랜드 탐방 - 기관명 : SeaWorld Orlando ▶ (이동) 올랜드 15:13 → 뉴욕 18:15 (비행, 3시간)
5. 11.(일) (5일차)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뉴욕 → 펜실베이니아 ▶ <공식일정> 롱우드 가든스 탐방 - 기관명 : Longwood Gardens ▶ (이동) 펜실베이니아 → 뉴욕
5. 12.(월) (6일차)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방문> 뉴욕 관광청 방문 - 기관명 : NYC & Company, Inc. ▶ <투자유치> - 기관명 : BridgeRock Capital Holdings ▶ <현장견학> 뉴욕식물원 탐방 - 기관명 : New York Botanical Garden
5. 13.(화) (7일차)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견학> 센트럴파크 & 동물원 ▶ <현장견학> 하이라인파크 & 첼시마켓 ▶ (입국) 뉴욕 00:50 → 인천 05:20 (비행, 15시간 30분) ※ 날짜 변경선 통과
5. 14.(수) (8일차)	뉴욕		
5. 15.(목) (9일차)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05:20 도착

2) 국외출장 활동 주요 내용

① 올랜도 관광청

■ 기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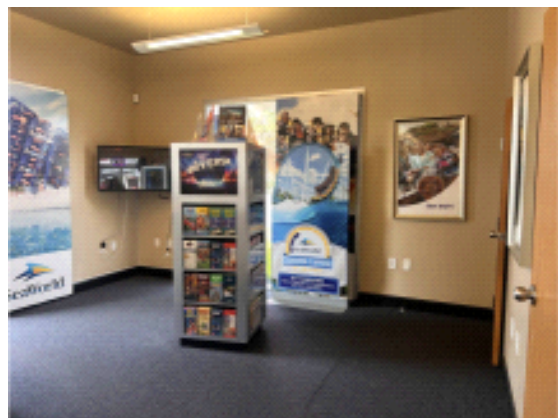
- 올랜도 관광청(Visit Orlando)은 1984년 올랜도/오렌지카운티 컨벤션 & 방문객 협의회(Orlando/Orange County Convention & Visitors Bureau)로 시작하여 올랜도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컨벤션 및 여가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는 정부와 관광, 지역사회 리더들이 포함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1600여 개의 테마파크, 호텔, 외식, 엔터 등의 회원사를 포함한 비영리 기관임
- 올랜도 관광청은 전 세계 여행자들을 올랜도로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관광을 성장시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함

■ 주요 인터뷰 내용

- 올랜도에 가장 먼저 조성된 테마파크는 1971년 개장한 디즈니월드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의 시설확장 제한으로 인해 두 번째 리조트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 인구의 75%가 미시시피강 동쪽에 거주했으며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올랜도의 연중 온난한 날씨로 올랜도를 눈여겨 보고 있었음
- 또한 올랜도의 도로망 구축을 보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세웠고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통해 비밀리에 더미기업을 이용하여 부지를 매입함
- 1967년 플로리다 주 의회는 오렌지·오세올라 카운티(Orange and Osceola Counties)에 리딕 크릭개선지구를 설립했는데 25천에이커의 디즈니월드 리조트 지역 내의 도로, 상하수도, 소방 등의 도시 기능을 담당함
- 이는 디즈니월드가 개발 중일 때 오렌지·오세올라 카운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와 전기 등 필수 인프라가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당시 카운티에서는 리조트 개발을 지원할 역량이 없었고 디즈니와의 협의를 통해 독립적인 자치구역이 설립되어 이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디즈니가 전기, 수도, 도로, 소방 등 도시 기반 서비스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고

현재도 전체 세금의 80%이상을 부담하여 오렌지·오세올라 주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수단으로 유지

- 당초 6억 달러 투자로 예상되었던 디즈니월드의 개발은 특별구역을 통해 수십억 달러이상의 민간 투자유치와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음
 - 디즈니월드는 전 세계의 수백만명 방문객이 끌어들이고 미국 최대 단일사업장 고용처로 7만5천명 이상의 출연진이 있음
 - 또한 1만6천명의 플로리다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제3자 업체 200개소가 있으며 21개 추가 고용 디즈니부지에 있는 21개 지점은 플로리다 소유임
- 디즈니월드가 매직킹덤 개장 후 올랜도는 관광도시로 부상했으며 씨월드는 올랜도에 두 번째 지점을 개장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였음
- 현재 플로리다주는 온난한 기후, 바닷가, 은퇴자 유입 등으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기 좋은 주로 선정되기도 함
- 올랜도에는 테마파크들과 공식 계약을 맺고 티켓을 유통하는 여러 곳의 관광정보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리조트 사업을 위해 만들어져 올랜도 관광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리조트 및 티켓 판매, 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올랜도 지역 테마파크 홍보물



관계자 인터뷰

■ 시사점

- 디즈니월드의 경우 리덕 크릭개선지구를 통해 도로, 수도 등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조달·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자치구역을 확보하여 개발리스크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완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개발계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확보와 기반시설 선투자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함
- 올랜도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에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고려하였기에 민간 유치가 더욱 수월하였음
- 디즈니월드뿐만 아니라 씨월드, 디스커버리코브 등 각각 명확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디즈니월드는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리조트와 쇼핑시설, 레스토랑, 워터파크들이 연결된 복합 리조트 관광지로 안면도 관광지에도 단일 테마 개발이 아닌 지역의 자연·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한 휴양, 해양레저, 상가 등 복합시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
-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인력채용, 지역업체, 지역 농산물 연계 등 지역순환 경제 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유도에 힘써야 함

② 올랜도 디즈니 월드(Magic Kingdom at Walt Disney World Resort)

■ 시설 개요

- 디즈니 월드는 1971년 개장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복합단지로 성장해왔으며, 약 1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여 플로리다주 전체 관광 수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중
 - 총 4개의 테마파크(Magic Kingdom, EPCOT, Hollywood Studios, Animal Kingdom), 2개 워터파크, 30개 이상의 리조트 호텔, 대규모 쇼핑·레스토랑·공연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로 운영 중
- 연간 방문객은 약 5,800만 명으로 인근 숙박, 상업시설, 교통 시스템 전반에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지역적으로 연간 약 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주고 있음
- 디즈니 월드는 방문객 동선을 고려한 순환형 구조, 파크 간 이동 셔틀/스카이라이너 등 연계 시스템 완비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입장권, 대기시간, 레스토랑 예약 등 실시간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체험 중심의 구역별 몰입 콘텐츠 (예: 스타워즈 존, 판타지랜드 등)와 테마파크 외 쇼핑몰(디즈니 스프링스) 및 고급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운영 중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디즈니월드는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이동하는 무료 트램을 운행하고 정문에서 내부로 이동시에는 모노레일과 페리 두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위한 경험을 연출한 것으로 몰입감을 제공하고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인식됨
- 매직킹덤 전체 부지의 12%가 정원 및 조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테마별로 식생과 조경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음
- 어드벤처랜드에는 열대수목, 판타지랜드에는 유럽풍의 꽃길, 리버티 스퀘어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느티나무와 참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계절별 연출되는 조경에 따라 포토스팟의 기능을 수행함

- 주요 공연프로그램으로는 디즈니의 캐릭터들이 대형 플로트를 타고 춤을 주고 지나가는 퍼레이드와 야간에 이루어지는 happily ever after(불꽃놀이)로 디즈니 성을 배경으로 프로젝션 매핑, 음악, 레이저, 불꽃놀이 등 다중 기술 멀티미디어쇼로 이루어져 있으며 6개의 테마와 엔딩 이벤트가 연출됨



주차장-정문 트램



페리 탑승장



모노레일 탑승장



퍼레이드



불꽃놀이

디즈니월드 입장 이동수단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디즈니월드는 단순 테마파크를 넘어 리조트·숙박·상업·교통이 융합된 복합도시형 관광지로서 운영되고 있음
- 각 테마파크는 브랜드 세계관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추고, 방문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콘텐츠 설계가 인상적이었음

- 테마공간별 조경 설계를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포토스팟을 만들고 이동 자체를 체험화함
- 운영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전환되어 대기 최소화·예약·동선 추천 등 사용자 경험(UX)을 극대화함

■ 시사점

- 민간 IP(디즈니 캐릭터 등)를 활용한 브랜드 관광 콘텐츠의 경제성 확인
- 지역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복합 경제효과 모델 참고
-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콘텐츠-숙박-교통의 삼위일체 전략 필요
- 지역에 기반한 세계관 구축과 교통·숙박 등 체류 인프라 결합이 안면도형 관광 설계에 참고될 수 있음
- 테마별 조경 설계 및 계절성·연출을 반영한 포토스팟과 경관 브랜딩 참고
- 정원공간의 다기능화로 휴식 및 문화활동 등 복합 활용

③ 올랜도 디스커버리 코브(Discovery Cove)

■ 시설 개요

- 디스커버리 코브는 SeaWorld 계열의 프리미엄 체험형 해양 테마파크로, 하루 약 1,300명의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조용하고 여유로운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급화된 서비스와 동물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매우 높음
- 특히, 디스커버리 코브는 올 인클루시브 요금제(\$200~350 수준)이며, 입장료에 모든 식사, 장비, 시설 이용 포함되어 있음
- 예약제 운영으로 혼잡 최소화 및 체류 만족도 극대화시키며, 성인 고객 대상 웰니스, 휴식 중심 콘텐츠 강화하고 직원 1인당 응대 고객 수 제한을 통한 친절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차별화된 고객 전략으로 운영 중



디스커버리 코브 지도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가장 인기가 높은 그랜드 리프는 바다 생태계를 재현해놓은 곳으로 열대어와 가오리, 대왕가오리 등과 함께 스노클링하면서 교감할 수 있는 곳임
- 인공시설이지만 열대식물의 집중식재와 계곡, 지형, 음향연출, 인공 구조물의 위장, 울타리가 없는 야생동물들의 배치 등을 통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함
- 락커, 스노클링 장비, 구명조끼, 선크림, 식당 등 모든 시설 및 장비들이 모두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음



디스커버리 코브 내부



락커룸



스노클링 장비 대여



동물친화 선크림



식당

디스커버리 코브 편의시설

- 핵심 체험 콘텐츠로는 전문 트레이너의 안내 아래 직접 수영하며 교감하는 “돌고래 수영 체험(Dolphin Swim Experience)”, 다양한 해양 생물과 함께하는 자연형 수중 체험인 “스노클링 체험(Grand Reef)”, 정글 형태의 조류 공간 및 부드러운 유수형 수로에서 휴식할 수 있는 “조류관찰 및 리버 라군 탐사” 등이 있음
- 오전 7시에 개장하는 디스커버리 코브의 무료 프로그램으로는 상어 먹이주기 체험, 플라밍고워크, 마모셋과 mammal 관찰하기, 새 먹이주기 및 교감하기 등이 있으며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는 씨벤처, 돌고래·상어·플라밍고와 교감하기, 가오리 먹이체험 등이 있음



홍학퍼레이드



수달 관찰



새 먹이주기체험



돌고래 체험

디스커버리 코브 체험프로그램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하루 최대 1,300명 입장 제한하여 조용한 공간과 고급 맞춤형 해양 체험 콘텐츠가 운영 핵심
- 돌고래 수영, 스노클링, 조류 관찰 등 고객과 자연의 교감 중심 콘텐츠가 인상적이며,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는 운영방식은 차별화됨
- 시설 설계도 자연 지형을 살린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 구역에서 소음·군집 최소화, 서비스 집중도 극대화됨

■ 시사점

- 생태·자연 친화적 설계로 환경과의 공존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광지 외에도 소규모 프리미엄 체험형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가능
- 입장권에 대부분의 서비스가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전략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프리미엄 수요 확보 가능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핵심 콘텐츠는 범고래 공연 중심의 메인 스타디움인 “샤무 스타디움(Shamu Stadium)”, 해양 생물 모티브의 롤러코스터 어트랙션인 “만타(Manta)”, “마코(Mako)” 디스커버리 코브와 연계된 해양생물 체험존이 있으며, 해양교육 전시관, 구조·보호 사례 소개존 등 비상업성 콘텐츠 존재
- 어트랙션 대기공간은 크고 작은 해양생물이 있는 수족관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이 대기 시 지루하지 않도록 테마에 맞는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음



롤러코스터



대기공간 내 수족관



돌핀넬서리



상징물



메인스타디움

올랜드 씨월드

-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씨월드는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가 가능했으며 유

모차 주차장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 모든 도로를 무장애공간으로 조성하였음



유모차 주차장



야외 공연장



기념품점



포토존

올랜드 씨월드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SeaWorld는 해양동물 보호 교육과 놀이공원의 오락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 콘텐츠 구조를 보여줌
- 범고래 쇼, 해양동물 전시, 롤러코스터 등 테마파크 기능을 하면서도 교육 전시 콘텐츠의 밀도도 높음
- 내부에는 해양 구조 이야기, 복원 사례, 생물 보호 기술 소개 등 교육형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병행됨

■ 시사점

- 체험형 해양 콘텐츠는 관광객의 학습 효과와 감성 자극을 동시에 유도하여 해양 인접지인 안면도 관광지의 차별화 모델로 유사 도입 가능
- 관광시설이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상업성을 결합한 사례로 의미가 있음
- 향후 단순 전시형 공간에서 벗어나 교육과 놀이를 융합하여 안면도 해양생태관·해양공원 개발 시 해당 사례를 참고 가능

⑤ 펜실베이니아 롱우드 가든스(Longwood Gardens)

■ 시설 개요

- 롱우드 가든은 20세기 초 Dupont(듀폰) 가문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유료 입장형 가든으로, 온실, 야외정원, 분수쇼, 계절 테마 전시가 어우러져 체류형 관광지로 연간 약 150만 명이 방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외곽에 위치한 세계적 규모의 고품질 사설 식물 정원임
- 2014년 메인 분수 정원을 복원했고 2021년 새로운 정원 체험을 위해 온실, 식당, 착수한 ‘Longwood Reimagined: A New Garden Experience’ 프로젝트는 온실과 분재 코트야드, 오키드하우스, 식당 등 주변 경관을 재설계하고 확장하여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였음



롱우드가든스 내부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난초, 선인장, 열대식물 등 기후별 테마 전시하는 “사계절 전시 온실”, 매주 야간 진행, 음악·조명·물 분사 결합형 미디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야외 분수 쇼”, 연말 전후 전체 정원을 활용한 조명 콘텐츠 운영되는 “조명축제” 등이 있으며, 입장료 수익과 기부 기반 재정으로 운영 중으로 프로그램 유료화 모델 병행 중
- 또한 계절에 따른 콘텐츠 갱신 주기로 재방문 유도하고 있고, 식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 취미 클래스 운영 중
- 20여개의 실내외정원원과 1만여종의 식물, 현대식 최신 설계 온실을 운영하

고 있으며 전문정원사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인턴십 등을 운영



롱우드가든스 온실 및 정원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온실, 야외정원, 분수쇼, 야경 조명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고급 정원 관광지로 연중 기획 전시, 조명축제, 음악 분수쇼 등은 단순 관람을 넘어 문화·예술 콘텐츠와 정원 공간의 융합 사례임
- 또한 온실 디자인의 경우 고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유럽식 현대 디자인을 적용한 독특한 형태의 온실로
- 입장료 기반 유료 모델이지만, 체험 품질과 전시 다양성으로 관람객 충성도와 재방문율이 매우 높음

■ 시사점

- 자연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 모델로 적합하며, 관광·교육·예술 콘텐츠 복합 운영의 경제적 지속성 확보 사례임

- 안면도 식물·정원 기반 체험 공간 설계 시, 사계절 운영, 전시기획, 유료 운영 전략 등 반영하여 외곽 여건을 고려한 고급 정원 콘텐츠 가능성 시사 가능

⑥ 뉴욕 식물원(New York Botanical Garden)

■ 시설 개요

- 뉴욕 식물원은 1891년 설립된 미국 최대 규모의 식물 전문 기관 중 하나로, 도시 내에 위치한 복합 자연문화공간으로 약 1,012천m²의 면적을 갖춘 이곳은 사계절 식물 전시, 교육 프로그램, 연구기관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음
- 기후별 식물 구역 구성 (열대, 사막, 고산 등) “에버렛 온실(Everett Conservatory)”, 봄 튤립, 여름 장미, 가을 단풍, 겨울 조명축제 운영하는 “사계절 테마정원” 유아~청소년 대상 식물 탐험 및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 자연학교” 생물종 보존 및 도심 생태계 연구 병행하는 “식물 보존 연구소” 등이 있음
- 지역 축제, 결혼식·기업행사 장소로 상업화 모델 확보 중이며 자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 기능화하여 자원봉사와 시민참여 기반 관리 (NYC Green Thumb 등 협력)하고 및 운영 중



뉴욕식물원 지도



그림 뉴욕 식물원 내부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약 1,012천㎡ 규모의 광대한 식물원은 기후별 구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자연학교, 청소년 교육 등 전 세대 대상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됨
- 유리온실과 온실구역은 열대, 고산, 사막기후를 재현하며, 계절 전시에 따라 재방문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시민 자원봉사와 후원기업의 프로그램 참여가 활발하여 공공성과 운영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함

■ 시사점

- 공공녹지에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교육·체험 기능을 접목한 사례로 계절 콘텐츠 활용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 전환 가능성 확인
- 도시 외곽에 있는 안면도도 사계절 식물 콘텐츠와 시민참여 생태 교육 공간 구축 시, 안면도 도입 시 관광·시민참여·환경교육을 결합한 생태공간 모델 기대할 수 있고 해당 사례 참고 가능

⑦ 뉴욕 관광청

■ 기관 개요

- 뉴욕 관광청은 1935년에 'New York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로 시작하여 1999년 'NYC &Company'로 개편 되고 2023년 New York City Tourism + Conventions으로 변경됨
- 뉴욕시의 5개 자치구(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탠드아일랜드)를 대표하여 관광 및 컨벤션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유치에 주력함
-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과 국제 컨벤션 및 이벤트를 유치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포용적 생태계 조성, 관광정보제공 및 방문객 지원, 포용적 생태계 조성을 전략방향으로 추진 중

■ 주요 인터뷰 내용

- 뉴욕 관광청은 1,400여 개의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관광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며 민간 연계 기반의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음
- 글로벌 마케팅은 공식 웹사이트 뿐만아니라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다채로운 콘텐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뉴욕시를 홍보함
- 뉴욕관광청의 핵심 목표는 뉴욕시 방문객 수 증가 및 관광 수익 증대와 5대 자치구의 균형있는 관광개발, 다문화, 성소수 등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 관광 및 커뮤니티 연계 확대를 목표로 함
-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방문객 활동, 지출, 항공편 수용량, 고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Visa Destination Insights를 활용하여 방문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 및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함
- 2024년 기준 6,43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근접한 수치로 회복되었으며 이 중 국제방문객은 전체방문객의 약 20% 내외지만 전체 관광 지출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2년에는 29개의 무역박람회 및 업계 행사에 참여하였고 2024년에도 아메리칸 버스 협회, 트래블 프로페셔널 오브 컬러 등 연례 컨퍼런스에서도 뉴욕시를 홍보함
- 1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지화 마케팅을 통해 국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음
- 관광이외에도 기업 친화도시로 브랜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과 더불어 비즈니스 목적지로서의 뉴욕이라는 이중전략을 실행함
- 브로드웨이, NYC레스토랑 위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뉴욕 아쿠아리움을 조성시 뉴욕시는 코니 아일랜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뉴욕 보태니컬 가든은 뉴욕시가 소유한 부지에 조성하고 운영은 일부 뉴욕시의 공공자금으로 운영함

■ 시사점

- 뉴욕은 '도시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다문화, 다인종 커뮤니티와의 협력과 포용성 증진은 단순 관광을 넘어 도시브랜드 형성에 기여함
- 시정부와 독립된 비영리조직 형태의 관광청이 정책, 마케팅, MICE를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이민자문화, 성소수자 문화 등 비주류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뉴욕시의 정체성과 관광매력을 강화함
- 안면도에도 여촌, 생태 등 도시 정체성 기반의 관광 실현이 필요하며 단기적 개발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콘텐츠 구축 및 공공-민간 협력 모델 정립이 중요
- 또한 뉴욕시의 사례처럼 문화·관광 복합형 콘텐츠와 지역 경제활성화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관광정책이 요구됨



뉴욕 관광청 현장 답사 및 인터뷰

⑧ 브릿지락 캐피탈 홀딩스(BridgeRock Capital Holdings)

■ 기관 개요

- 주거·부동산 매매, 건축, 임차 및 투자 서비스 기업으로 국내 외투법인 설립 완료, 운용자산 1조 8천억원, 3·4지구 참여 기업

■ 주요 내용

- 안면도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완료, 1·2지구 100% 국·공유지 등 투자 장점 설명
- 3·4지구 개발 시너지로 1·2지구 관광지로서의 향후 발전 가능성 설명
- BridgeRock Capital Holdings 기업 의견의견으로 ①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고 있으나, 3·4지구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추가 투자 우려 ② 향후 3·4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 시 1·2지구 등 안면도 광지 사업에 추가 투자 희망
- 상담기업과 주기적 사업설명(E-mail, 전화 등)을 통해 연락체계 유지 및 1·2지구 추가 투자 유도



그림브릿지락 캐피탈 홀딩스 투자유치 활동

⑨-1 센트럴 파크

■ 시설 개요

- 센트럴파크는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대형 도심 공원으로 도시 녹지 보전과 시민의 휴식 및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됨
- 공원 내에는 산책로, 공연장, 동물원, 미술관 등이 있으며 연간 4천여명이 방문하는 다기능 복합 여가·문화 공간으로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임
- 센트럴파크는 민관협력 기반의 비영리 조직인 센트럴파크 컨서번시(CPC)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부금과 시민참여를 통해 공원 관리 자금을 충당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센트럴 파크에는 방문자센터와 기념품점이 있으며 동물원과 연못, 정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공식 가이드투어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센트럴파크에서는 매년 여름에 열리는 음악축제인 서머스테이지 등 다양한 페스티벌이 개최됨



센트럴파크



기부자 명패



방문자센터



기념품점

센트럴파크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센트럴 파크는 뉴욕시 소유의 공공자산이지만 비영리 민간조직이 공원 유지 및 복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85%이상의 운영예산을 기부금과 민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었음
- 공원 곳곳에 개인 및 기업 기부 및 후원자의 명판이 설치되어 시민 주인의식 제고 및 기부 유도효과가 큼
- 단순한 녹지 휴식 공간을 넘어서 공연장, 미술관, 수상보트장, 동물원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연계되어 복합 문화공간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

■ 시사점

- 기부자 예우, 명예공간 조성, 투명한 회계시스템 등은 시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참고 가능하며 자원 봉사 프로그램과 참여형 교육 콘텐츠를 통해 시민 주인의식을 강화한 점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단순한 휴식 목적의 공원이 아닌 문화·예술·자연·운동 등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이용 목적별 맞춤 공간 구성 조성 등의 다양화 전략 필요

⑨-2 센트럴 파크 동물원

■ 시설 개요

- 센트럴파크 동물원은 센트럴파크 남동쪽에 위치한 중소규모 도심형 동물원으로 자연학습과 생태보전을 위한 교육 콘텐츠 중심의 동물 체험 시설임
- 1859년 임시 동물을 전시하기 시작하면서 동물원이 조성되었고 1864년 공공 동물원으로 개장하여 1988년 재건축 이후부터 WCS가 운영하기 시작함
- WCS가 운영을 맡으면서 전시관람 중심의 전통적인 동물원에서 벗어나 생태 감수성과 보전 인식을 높이는 교육 중심의 동물으로 정비되어 운영 중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동물원은 열대지대, 온대지대, 극지지대, 중앙정원에 바다사자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동물원과 카페, 기념품점, 델라코트 시계탑이 있음
- 델라코트 시계탑은 30분 간격으로 오르골 음악과 동물인형이 회전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감성적 경험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자리잡음
- 여름캠프, 사육사 체험, 현장학습투어 등 어린이 및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롱크스 동물원과 뉴욕 아쿠아리움과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함



센트럴파크 동물원 입구



델라코트 시계탑



온대 지역 전시관



열대 지역 전시관

센트럴파크 동물원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도심 속 소규모 생태체험공간으로 규모는 작지만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활용도가 높았음
- 철장대신 유리 및 개방형 구조를 활용하여 동물 복지 및 관람 몰입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동물 친화적 전시환경을 조성함
- 어린이 동물원을 별도로 운영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이 제공되어 있고 먹이주기, 자연놀이 학습 등의 콘텐츠가 운영됨

■ 시사점

- 공원 내에 위치한 소규모 동물원임에도 체험 및 교육 콘텐츠가 풍부하였고 특히 전시 위주의 동물원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와 교육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현대적 동물원 사례임
- 센트럴파크 동물원은 메인동물원 외에 어린이 동물원에 별도로 있어 대상별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참고 가능

⑩-1 하이라인 파크

- 1934년에 건설된 화물 철도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수송 수요 증가로 철도 수송이 감소하면서 1980년에 폐쇄되었음
- 토지주들이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조직이 설립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이 개장되었고 2019년에 확장구간이 추가됨
- 하이라인 파크는 뉴욕시 공원국과 비영리조직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민간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유지관리 되고 있음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하이라인파크에는 곳곳에는 쉼터와 다양한 현대 미술작품과 설치미술을 감상할 수 있으며 허드슨 강과 맨해튼의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음
-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과 꽃을 감상할 수 있고 무료 도슨트 투어와 별 관측, 줌바 댄스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하이라인 파크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하이라인 파크는 단순한 산책로 기능을 넘어 현대미술 전시와 공연, 별 관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휴식 기능을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첼시마켓은 푸드홀, 로컬마켓, 팝업스토어 등으로 구성된 복합 상업·문화공간으로 활용됨
- 하이라인파크의 공공예술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 및 다문화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구성되며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조경·역사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⑩-2 첼시마켓

- 과거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의 공장을 리모델링하며 1997년 개장되었고 쇼핑 물, 사무실, 마켓, 식당 등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복합문화공간임
- 첼시 마켓은 뉴욕시 산업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 재생 공간으로 건물내부는 산업시대의 건축양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냄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첼시마켓은 다양한 식당과 의류, 서적,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다양한 상점이 있고 상층부에는 기업의 사무실과 방송제작 공간이 있으며 지하에는 첼시 로컬마켓이 있어 육류, 해산물 등 신선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음
- 첼시 마켓에서는 첼시 심포니 공연과 드래그 퀸 빙고, 아티스트& 플리스 등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트리트랩, 라이브 뮤직, 푸드 시음회 등 이벤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첼시마켓

■ 방문 결과 주요 내용

- 첼시마켓은 하이라인 파크 입구와 도보로 연결되어 있어 하이라인 파크 방문객이 첼시마켓에서 식사·쇼핑을 즐기고 첼시마켓 방문객은 공원에서 산책 및 문화체험을 이어가는 등 상호유입 구조를 통해 체류시간이 확장되는 순환적 공간관계를 형성함
- 첼시마켓은 지역의 예술가에게 전시·판매공간을 제공하고 로컬 작가의 작품 및 팝업 전시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있음

■ 시사점

-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어 안면도에도 정원과 상업·문화·예술·숙박 등이 연계된 다기능 복합화가 필요
- 자연스러운 보행 흐름으로 방문객이 이동하면서 쇼핑·휴식·관람·식사를 경험할 수 있어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배치하는 전략 필요
- 하이라인파크는 비영리 단체가, 첼시마켓은 민간 개발사가 운영하지만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

3. 종합 시사점

■ 체류형 콘텐츠 구성의 전략화 필요

- 계절별 테마 운영, 조명축제, 식물 전시 등은 관광의 계절 편종을 줄이기 위해 체류형 콘텐츠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전략화 필요
- 디즈니월드, 롱우드가든 등은 숙박·쇼핑·공연 등 복합 기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안면도 역시 단순 당일형 관광지에서 벗어나, 야간 콘텐츠, 사계절 정원, 문화공연, 야경 조명 등 체류 유도형 콘텐츠를 정책적으로 설계할 필요

■ 자연친화적 관광개발과 생태교육 결합

- 단순 관람형 시설을 넘어 체험형(스노클링, 조류 관찰 등) 중심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디스커버리 코브, 뉴욕식물원 등은 환경과 공존하는 설계가 특징적이며, 특히 생태 체험과 교육 기능이 결합된 관광 콘텐츠는 안면도 해양생태자원에 손쉽게 접목 시킬수 있으며, 생태관찰 트레일, 해양스쿨, 생물보호센터 등 유사 모델 도입이 필요

■ 안면도 자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복합 콘텐츠 개발 필요

- 안면도는 해양자원, 수목원, 정원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단순 관람위주의 활용에 머물러 있음
- 롱우드 가든스처럼 정원예술과 공연·전시·교육을 결합하거나 올랜도 디스커버리 코브와 같이 고급체험 콘텐츠 중심으로 한 유료 프리미엄형 관광모델을 참고하여 고급화 전략 도입 필요